

어떻게 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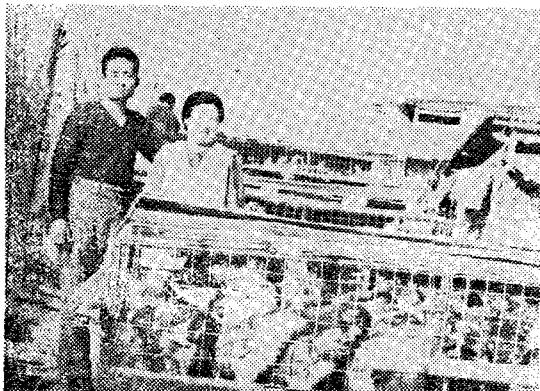
이번호에는 맨 손으로 양계를 시작하여 상당한 규모의 양계장을 건설하였고 더
 구나 양계에는 거의 문외한이던 분이 월간 잡지에 나오는 기사에 의해서 연구
 노력한 결과 아직은 그 결과를 알 수 없지만 현재까지는 성공적으로 새로운 양계
 법(청공양계)을 실시하고 있는 수색양계장을 찾기로 하였다.

무에서 유를 만든 분

기자가 경기도 고양군 신도면 덕은리 산 42-1
 에 있는 수색양계장을 찾은 것은 2월 중순의 오
 후-. 넓은 수색 벌에는 아지랑이가 한창 피어 오
 르고 있었다. 기자를 안내하시던 수색종금장의 한
 종석 선생님께서 『그분 어떤 분이십니까?』하고
 묻자 『무에서 유를 만들어낸 지독한 사탐입니다』
 하고 대답하셔서 기자는 키가 작달막하고 뚱뚱하
 게 생겨서 눈초리가 매섭게 생긴 사람을 연상했
 다. 국방대학원을 끼고 우측으로 돌아서 수색양
 계장의 주인되시는 한 명복(42세)씨 내외분을 만
 났을 때 기자의 모든 예상은 전부 어긋났다. 훌
 륭한 키와 유순한 눈초리로 반갑게 기자를 맞
 아 차분하게 들려주는 한씨의 양계일기는 이러하
 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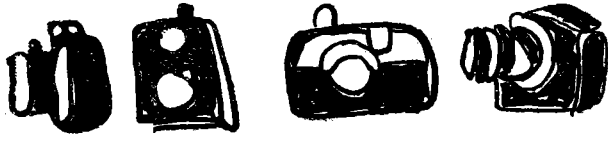
최초의 양계 130수

제가 맨 처음 양계라고 시작한 것은 1960년의



<청공 양계장 앞의 한명복씨 부부>

일이었습니다. 신의주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군에 입대 일등병에서 육군 상사까지 진급한 후
 사회에 나올 생각을 하니 아득했습니다. 다시 갑
 종 간부 66기로서 소위로 임관했습니다. 그러나
 몸의 건강이 신통하지 않아서 육군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의병제대로 전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막
 상 군생활만 10여년 해 온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아무 일이라도 배우
 겠다고 저희 삼촌되시는 한종석씨 댁에서 양계를
 처음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양계를 배우면서
 틈틈히 일본의 양계서적, 월간잡지 등을 읽으면
 서 양계를 익혀나갔습니다. 결혼을 하고 막상 분
 가를 하여 나올려고 보니 짐이라는 것이 겨우 닭
 은 리어카였습니다. 그동안 받은 월급(?) 등을
 조금 가지고 수색의 야산 기슭에 방 세칸짜리 집
 을 하나 얻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양계 300수만하면 4식구 정도는 먹고 살 수 있지
 않겠느냐고 삼촌댁에서 병아리 130수를 분양받아
 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병아리 130수에 대한
 값은 제가 2개월 후 계를 넣어서 갚아드렸습니
 다. 제 생각에는 처음부터 남의 도움으로 시작된
 사업이 잘될리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
 때가 1963년 11월이었는데 한창 양계파동이 있을
 때였습니다. 오늘은 500수 이하가 문을 닫고 내
 일은 1,000수 이하가 문닫던 시절에 양계를 시
 작했으니 좋을리가 없지요. 130수의 닭이 하루에
 80~85%의 산란율을 보이는 데도 하루에 100원
 씩 적자였습니다. 달걀을 팔아 봤자 사료값도 안
 되었습니다. 저는 양계를 저의 아내에게 맡기고
 사료를 조달하기로 생각하고 매일 아침 4시 반에
 일어나서 수색에서 자전거로 서울 시내 각 음식점
 에서 잔반(뜨물)을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자전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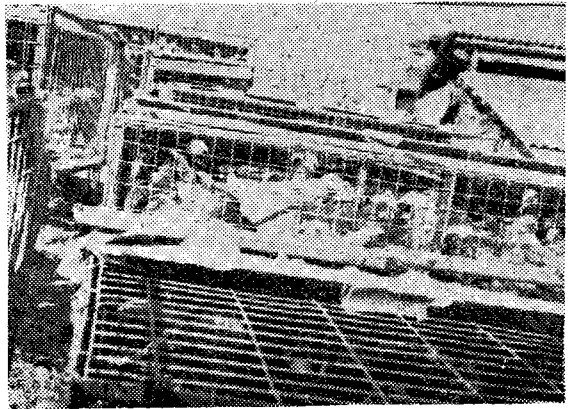


수색양계장

에 잔반 5초통을 실으면 약 200kg의 무게가 나가는데 그것을 싣고 무학재를 넘으려면 온 몸에 식은 땀이 주르르 흐르곤 했습니다. 매일 새벽 약 16km의 거리를 자전거로 잔반 나르기를 약 2년간 계속했습니다. 새벽 허기진 배를 줄라 매고 2년을 계속했다면 말이 쉽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당시는 생활이 어려워 보리 한말로 한달씩 연명을 하고, 식량이 없으면 닭에게 먹일 옥수수를 쭈어먹곤 하던 때이니 더 예기해서 무엇 하겠습니까. 날라온 잔반에 물을 넣어서 끓인 후 닭사료에다 개어서 먹이면 무척 산란율이 좋아졌습니다. 더구나 양계사료로서는 쓰고 남아서 4초통 정도를 팔면 하루에 약 2백원 정도씩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남들에게 쥐버리는 잔반이 아까워서 나는 시장에 나가 또 폐지를 샀습니다. 이렇게 모은 폐지가 약 20마리, 그것을 65년에 팔았더니 상당한 자본이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닭 300수를 더 샀습니다. 양계파동이 가신 후 달갈값은 계속 좋아졌습니다.

.....
닭 130수가 한달에 2만원을 벌어

좋아진 달갈값은 자꾸 모오다 보면 한달에 평균 2만원씩 모아 졌습니다. 저희 부부는 양계를 계속하면 살 수 있을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계속 일해 나갔습니다. 그때 어느 사람이 권해서 오리도 약간 길러서 팬찮은 수익을 올렸습니다. 2년째 되던 해인 1965년에는 닭이 약 1,600수 정도의 규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의 잔반 나르는 작업은 그만두지 않고 계속해 나갔습니다. 닭이 2,000수를 넘어서면서부터는 도저히 한사람의 힘만으로는 안 되겠기에 잔반 나르기를 그만두고 직접 양계장에 달라 붙었습니다. 꾸준히 일하고 열심히 노력한 덕택에 자꾸 닭의 수는 늘어만 갔습니다. 현재의 규모는 산란계 약 5,000수, 중추, 대추가 4,000수, 초생추가 1,200수 육계가 10일마다 1,200수씩 들어 오고 있으니 맨 처음



<-20°C의 추위에서도 건강한 병아리들>

시작할 때의 규모에 비하면 많이 증식된 셈이지요.

그러나 저는 그동안 계사를 지으면서도 거의 계사에는 돈을 들이지 않았습니니다. 겨우 기둥 몇 개만 사고 나머지는 시장에서 산 고기상자로 지붕을 만들고 루핑을 덮은 후 판자의 밑에는 가마니를 대고, 벽은 비니루를 씌워 거의 돈을 들이지 않고 계사를 만들어 왔습니니다. 거의 큰 양계장에서 손해보는 원인이 고정자산이 큰 부담을 주고 또 저는 짓고 싶어도 지을 돈이 없기 때문이지요. 구태어 따지자면 짓가 평당 400원 정도씩 든 편입니다. 그러나 항상 저의 머리 속에는 어떻게 하면 고정자본을 들이지 않고 양계를 할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니다.

.....
다가시씨의 청공양계법

일본의 양계책을 뒤적이던 저의 눈에 떠인 것이 일본의 다가시(高橋廣治)씨의 청공양계법이란 것이 었습니니다. 원리는 간단하였습니니다. 즉 닭은 인간이 인위적으로 계사니 뭐니 하여 거의 그 천성을 억제하였기 때문에 인공적인 육추, 생존에는 그 생존율이 높지 않다. 이러한 닭을 약간 훈

어떻게 하고 있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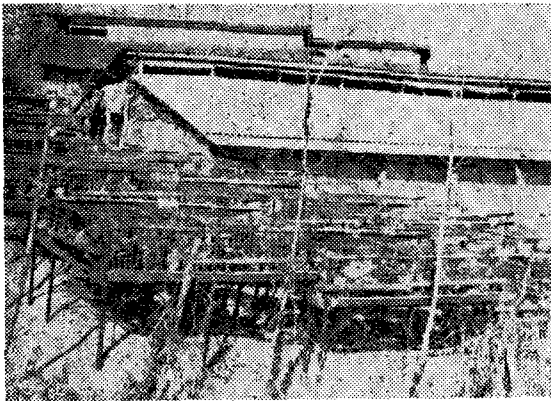
런시켜 자연 대지에 내놓음으로서 환기를 인간이 조절하지 않고 일광을 마음껏 쬐이게 하므로서 닭의 원래 천성을 발휘시키자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1969년 9월에 이 양계법에 따라서 육추를 시작하여 보았습니다. 책에 명시된대로 육추기를 제작하여 병아리를 10일간 기른 후(실내 온도

위는 가려줘야 합니다.

..... 계속적인 관찰이 필요

과연 한씨가 가리키는 청공양계장에는 케이지 사내의 닭들과 같은 품종, 같은 날 들어온 닭인데도 훨씬 건강해 보이고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닭들이 아주 활기 차게 보였다. 현재 육추를 하고 있는 1,200수의 초생추도 아침 기자가 찾아가기 전날 한씨가 늦게 일어나 아침 2시부터 8시까지 보일러의 불이 꺼져 약 1~2°C밖에 안 되는 실온에서도 끄떡 없이 견뎠다는 것이다. 『앞으로 이 방법으로 계속 양계를 하실 생각이십니까』 하고 묻는 기자에게 『금년에 산란계의 산란성적이 만일 좋으면 계속하겠습니다. 육계도 금년에 해 볼 생각입니다. 단 육추는 절대적으로 이 방법이 좋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실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한씨의 눈동자는 수색별의 노력과 같이 타는 것처럼 보였다(Tel. 33-5771).



<수색 양계장의 청공양계 전경>

10°C에서) 11~20일까지 실내온도 5°C의 냉방에서 단련 시킨 후 20일 이후에는 아주 밖에다 내놓아 버렸습니다. 35일째에는 삼각빠다리에 넣어서 기른 후 81일째에 케이지에 옮겨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1969년 겨울을 고스란히 밖에서 길렀습니다. 이렇게 밖에 내놓은 닭이 2,000수였는데 지금까지 육성율은 2,000수 중에 약 40마리가 죽었으니 98%라고 볼 수 있지요. 저는 여기에서 자신을 얻었습니다. 지난번 1.20일경의 -20°C에서도 닭은 끄떡없이 잘 자라고 있습니다. 아직 산란은 해보질 않아서 산란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육추에는 이 방법이 확실히 좋다는 것을 느끼고 이것을 널리 보급시키고 싶습니다. 모든 양계가들이 육추 때문에 꽤 걱정을 하고 있는데 이 방법을 쓰면 틀림없습니다. 저 혼자만 알고 하기에 약간 안타까운 생각이 들더군요. 지난 겨울 저는 연료비를 전혀 들이지 않았습니다. 다카시씨에 의하면 겨울의 추위는 염려할 바가 못되나 더



<삼각식 육추기의 병아리들>